

지역 매아리

부안군, 청소종합대책 추진

부안군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부안군을 찾는 귀성객과 방문객 및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 등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를 추석명절 청소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10일을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추석맞이 다함께 청소하기 좋은 날'로 정하고 공무원과 사회단체, 군민 등이 참여하는 주요 도심지에 대한 대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며 마을 등 생활주변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중점 단속과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 일제점검 단속을 통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생활폐기물은 추석 당일인 오는 13일을 제외하고 정수거 할 계획이며 연휴기간에는 청소상황실 및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 및 적정 처리 해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깨끗한 추석명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동참이 중요하다"며 "내 집·내 점포 앞 스스로 청소하기,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음식 장만하기, 철저한 쓰레기 분리배출 등 군민 모두가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데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의회 임시회 마무리

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는)는 지난 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는 것으로 제30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4차례의 본회의를 개최해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9건 등 11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특히,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 총 26개소에 대한 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군정 주요 사업의 운영 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현장에서 파악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요구했다.

이한수 의장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어려운 지역경제에 생동감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의결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을 연내에 서둘러 추진할 것"과 "제13호 태풍 링링에 대한 사전대비와 추석을 맞이하여 부안군 우리 농·축산물과 부안사랑 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편안한 한가위 되세요”

정읍시, 추석 명절 종합대책 마련...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비상시 적극 대응

정읍시가 추석을 앞두고 연휴 기간 귀성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12일부터 15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총괄지휘(☎539-5136) ▲재난재해(☎539-5965) ▲물가(☎539-5604) ▲교통(☎539-5912) ▲비상진료(☎539-6137, 6138) ▲생활환경(☎539-5721) ▲상하수도(☎539-6461) 시민 생활과 밀접한 7개의 대책반을 편성한다.

'재난재해대책반'은 시외버스터미널과 영화관,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한다.

'물가대책상황반'은 명절 장바구니 물가와 성수품 관리를 위해 점검반을 편성해 합동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또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을 전개해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교통대책반'은 연휴 기간 중 사고 등 시정장과 정읍역, 터미널, 승강장 등



정읍시가 추석을 앞두고 연휴 기간 귀성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상습 정체 지점과 병목 지점에 교통지도 단속요원을 특별 배치해 시민과 귀성객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한다. 또 지역 내 2개소(수성동, 시기동)의 유료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주차 편의도 도모할 계획이다.

'비상진료대책반'은 비상 진료 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과 함께 비상 의료체계를 구축해 연휴 기간 중 환자들의 진료 공백을 방지한다. '생활환경대책반'은 쾌적하고 밝은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연휴 기간 중 기동 청소반을 운영해 시가지 주요노선을 집중청소하고 생활쓰레기 수거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익한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12일에는 정읍시공영 특설무대에서 정읍시립극단 '정읍풍류 락(樂)' 상설공연, 13일은 생고을시장 공연장에서 추석맞이 '한가위가요제'가 열린다.

유진섭 시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들이 불편함 없이 편안하고 훈훈한 한가위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연휴 기간 중 기동 청소반을 운영해 시가지 주요노선을 집중청소하고 생활쓰레기 수거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시민들과 귀성객들

농생명식품·역사문화관광 수도로 도약

고창군, 내년도 업무 추진 착수

고창군이 농생명식품·역사문화관광 수도 도약을 위한 '2020년 주요업무와 신규시책 보고회'를 갖고 내년도 업무 추진 준비에 착수했다.

지난 6일 고창군은 유기상 군수 주재로 2일부터 나흘간을 걸쳐 내년도 주요 사업과 신규시책 등에 대해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서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고, 내년도 균형 업무 준비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유기상호의 중점목표인 '농생명 문화화'를 다시 치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 도약을 위한 균형목표를 바탕으로 ▲서해안권 관광기반 구축 ▲지역발전형 생활SOC 확충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은 내년 일반산업단지 투자유치,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출시, 고창문화관광재단 본격운영, 고창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대규모 사업이 가시화 되는 해로 각종 사업들이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더불어 전북대도약 핵심프로젝트와 내년도 도정 역점시책 등 도정 운영방향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군특 지방이양사업 등에 대한 국도비 확충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2020년은 한반도 첫수도 고창의 새로운 100년 미래 성장기반 준비와 전 세계인이 찾는 세계유산도시 기틀을 완성해 가는 중요한 해"라며 "부서간 소통과 민간 협업을 통해 내년도 핵심 사업과 새로운 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추석 연휴 기간 비상진료대책 수립 운영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추석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 진료와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부터 15일까지(4일간) 고창군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560-8773)을 운영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고창병원은 추석 연휴기간에도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군내에서 연휴기간 요일별로 당직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정해 운영하고,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기관도 지정된 근무일에 비상진료를 실시한다.

또 추석 연휴기간 감염병 집단환자 발생에 대비해 의료기관 질병정보 모

니터망을 강화해 연휴기간동안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이밖에 연휴 중 의료기관과 약국 방문이 어렵거나 가벼운 증상일 경우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 소화제, 감기약 등 13가지 안전장비의약품 구입할 수 있다.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은 고창군 비상진료대책상황실(560-8773), 응급의료정보센터(전화 국번없이 119 또는 129), 실시간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www.e-genor.kr) 및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 또는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를 이용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자연이 빛은 보물인 부안서 힐링여행을!

부안군, 부안관광 활성화 중국 관광객 유치 업무협약 체결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중국정부 산하기관인 중외국제여행사(사장 황훙), (유)서해퍼피스(회장 이종길), 전북도관광협회(회장 최수현)는 지난 6일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부안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국 관광객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부안군과 중외국제여행사, 서해퍼피스, 전북도관광협회는 각 기관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 등에 뜻을 같이 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내용은 중국 여행사와 함께 관광상품 기획, 중국인 관광객 모

객, 관광객 유치 실현, 홍보활동 전개, 행정·재정적 지원 협조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채석강 등 관광지 명칭부터 중국과 평강히 남아 있는 부안군에 중국 관광객 10만명 이상이 방문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연이 빛은 보물인 부안에서 중국 여행객들이 힐링여행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훙 중외국제여행사 대표는 "부안군의 빼어난 자연경관이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다"며 "서해낙조를 비롯한 부안군 관광지

를 둘러보는 중국 여행객들에게 크게 만족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종길 서해퍼피스 대표와 전북도관광협회 성하준 부회장은 "부안군과 중국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중국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기획, 중국 관광객 모집, 홍보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협약 후 중국여행사 관계자 등이 채석강, 짬버리공원, 청자박물관, 내소사 등 부안군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숙박지 및 음식점 등 사전답사를 진행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공유토지 분할로 토지소유자 불편 해소

정읍시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해 공유토지분할 신청 3건에 대한 분할개시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법률의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분할이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이다.

이를 통해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특별법은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공유토지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 건물에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

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대상이다.

단, 공유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와 소유자 간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토지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읍시청 종합민원관(063-539-5364)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이 특별법을 통해 많은 시민이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개인재산권 행사나 토지이용 불편해소 등을 위해 공유토지분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nd a smaller image of a gift se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several smaller images of gift sets with their respective prices and contents listed.